



02

ESG 경영 전략으로의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의 화두, ESG 경영

백인규 | Deloitte Korea ESG 센터장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나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등 좁게는 기업이 속한 사회, 넓게는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비슷한 개념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팬데믹과 심각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내·외 ESG 관련 규제 강화는 물론, 금융계의 ESG 기반 투자 확대 및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 증가, 기업 책임경영에 대한 임직원 인식 개선 등 기업의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 압력이 강해지면서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경영 활동상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과거 유관 개념들과 크게 두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의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장기간 추구되어왔던 '주주 자본주의'가 기업이 속한 사회의 전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로 변모하였다.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의 '기업 목적 성명(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2019)'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20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 2020)'이 명시하고 있듯 기업은 이제 주주 외에도 정부와 투자자, 소비자, 임직원 및 협력사, 지역사회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경영 전반에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ESG 요소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내재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핵심 사업영역과 분리된 일회성 자선 및 기부에 그쳤던 것과 달리 ESG 경영은 구체적인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ESG 경영의 핵심은 기업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과 ESG 요소를 통합,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외연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기업보다 한발 앞서 각 기업의 목적과 사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ESG 경영 전략을 적용하여 △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형' 기업으로, △ 전통적 경계를 초월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호 활동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넓혀가는 '생태계 집중형' 기업으로, △ 공동 혁신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을 꾀하는 '협업형' 기업으로 점차 반경을 넓히며 진화해 가고 있다.

기업 이해관계자 구조



출처: Modern Company Management in Mechanical Engineering (Klaus Schwab, 1971)

ESG 경영 구조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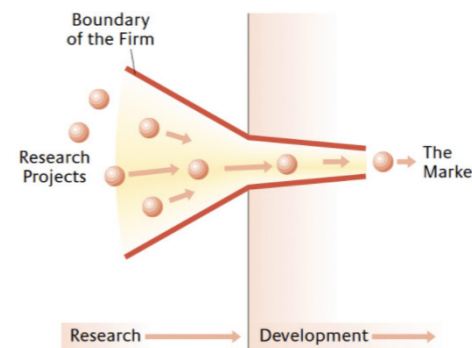
ESG 경영과 오픈 이노베이션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기업의 외연 확대에 적합한 전략 중의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념의 창시자로 자주 인용되는 미국 버클리대 헨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은 독립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개발, 상업화하는 폐쇄형 혁신 구조(the closed innovation model)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이 속한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구(the open innovation model)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기밀 유출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면, 기술 발달에 따른 급격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점차 기업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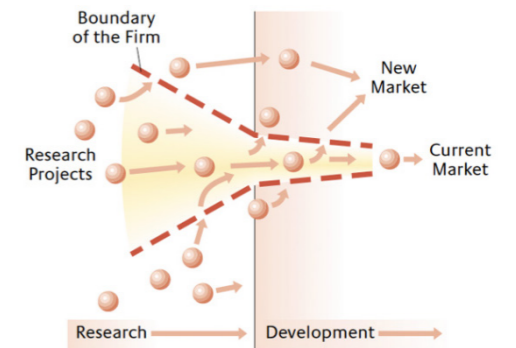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262곳(52%)이 스타트업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기술 자문과 사업 지원, 제품 및 서비스, 공동 협업공간 등의 무상 제공 외에도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 발굴과 기업 벤처 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업종 특성상 제약과 전자통신, 금융 산업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개방형 혁신에 다소 뒤처졌던 국내 기업도 ESG 경영 도입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재편과 혁신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외부 자원 조달이 필요하게 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폐쇄형 혁신 구조



개방형 혁신 구조



출처: The Era of Open Innovation (Henry W. Chesbrough,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03)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및 시사점", 2019; Arnaud Bonzom & Serguei Netessin, "How do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Deal with the Startup Revolution?," 2016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현황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여 ESG 경영 도입 초기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75건의 기사를 선별했으며, 이를 산업 및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심층 분석하였다.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유형의 경우, 체스브로 교수의 분류체계와 글로벌 기업의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다섯 가지 유형(R&D, 사업 협력, 자금 지원,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63개 국내 기업·기관의 81건의 활동을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대비 국내 활동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었

다. 먼저 개별 산업 기준으로 투자 대상 발굴과 투자자간 연계가 중요한 금융 산업과 신약 개발을 위한 R&D가 필수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글로벌 현황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동일 산업 내 협력 네트워크 조성 수요가 높은 협회 등의 기타 부문과 그룹 전사를 책임지는 그룹사의 활동 비중도 상당했다. 활동 유형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전방위적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형 협업을 추구하는 플랫폼 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51%)을 차지했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초이자 핵심 영역으로 볼 수 있는 R&D가 25%의 비중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역량강화는 플랫폼 내에서 부가적인 활동으로 포함되어 추진되는 특성상 협력사의 역량강화만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현황

플랫폼 (41)		1	1	2	2	1	2	3	9	2	12	6
역량강화 (0)												
자금지원 (13)	1		1	1		1				7		2
사업협력 (7)		1				1		1		3		1
R&D (20)	1		1	2	1	2	1	2		8		2
(활동 건수) (기업/기관 수)	건설/기계 (1)	자동차 (2)	전기전자 (2)	ICT (3)	반도체/디스플레이 (3)	석유화학 (4)	소비재 (3)	유통/물류 (5)	금융 (9)	바이오/헬스케어 (13)	기타 (협회 등) (12)	그룹사 (6)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활동건수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역량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유형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활동 비중 순).

플랫폼

플랫폼은 전체 63개 분석 대상 중 41곳이 추진 중이었다. 개별 활동에 주력하기보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핵심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기존 활동 유형이 보다 다각화되는 특성을 띠었다. 석유화학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군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의 목적을 살려 공동 R&D부터 자금 지원, 상업화와 판로 개척, 역량강화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형태로 협업 중이었다. 협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속한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같은 플랫폼이라도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 사업의 가치와 기회 창출에 집중하는 반면, 공공기관 및 협회의 경우 특정 이해관계보다 산업 내 구조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차이를 보였다.

플랫폼 추진 현황

네트워크 (4)			1		1							2
해이판로 (17)		1		1	1			1	5	1	5	2
기타 (2)											2	
역량강화 (22)		1	1	1	2		2	2	4	1	3	5
직접투자 (20)			1		2	1	1	2	4	1	2	6
투자유치 (21)			1		1		1	2	7	1	4	4
사업협력 (28)			1		2		2	2	9	1	6	5
R&D (15)				1	1			2	2	1	3	5
(활동 건수) (기업/기관 수)	건설/기계 (0)	자동차 (1)	전기전자 (1)	ICT (2)	반도체/디스플레이 (2)	석유화학 (1)	소비재 (2)	유통/물류 (3)	금융 (9)	바이오/헬스케어 (2)	기타 (협회 등) (12)	그룹사 (6)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활동건수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조사·분석 방법론

STEP 1 2020.01.01-2021.06.30 기간 동안의 '오픈 이노베이션' 키워드 기사 검색(네이버 뉴스)

STEP 2 검색된 81건의 기사에 대해 연관성 검토 후 최종 75건의 기사 선별

STEP 3 산업 및 활동 유형별 기사 분류 → 총 63개 기업·기관, 81건 활동 추출
'플랫폼' 활동 관련 상세 분석을 위한 세분류 → 41개 기업·기관, 129건 활동

*산업: 건설/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소비재, 유통/물류, 금융, 바이오/헬스케어, 기타(협회 등), 그룹사

*활동 유형: R&D, 사업 협력, 자금 지원, 역량강화, 플랫폼

*플랫폼: R&D, 사업 협력, 자금 지원(직접 투자, 투자 유치), 역량강화, 네트워크(전시회 개최), 해외판로 개척, 기타 네트워킹

※ 활동 건수의 경우, 기업·기관에서 다수의 활동 내역이 있어도 동일 유형에 해당 시 중복 없이 1건으로 산정

※ 플랫폼 세부 활동 129건은 전체 활동 81건 중 플랫폼 활동에 해당하는 41건을 세분류한 값임

STEP 4 산업 및 활동 유형별 기업·기관의 추진 현황 심층 분석(필요 시 웹사이트 등 공개자료 추가 검토)

2 자금 지원(Funding Innovation), 기술 협력(Generating Innovation), 사업 협력(Commercializing Innovation)

플랫폼은 보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추진 주체(기업·기관)와 협업 수요 기업(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및 산학연구기관, 투자기관(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은행 등) 및 자문사(회계/법무/세무법인 등) 등이 참여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도 자문사의 하나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업·기업별 플랫폼 추진 현황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자동차	오토앤	자동차 O2O 플랫폼(20):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스타트업 멘토링 및 대기업 연계, 판로 지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기 전자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사업 협력 지원, 자금 지원(1억원), 투자자·기업관계자 대상 데모 데이 개최,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전시(CES, MWC, IFA 등) 참가 지원	-
ICT	SKT	ESG 코리아 2021 얼라이언스 결성(21): 스타트업 투자 유치, 사업 연계 정보 및 ESG 경험 공유, 대외 인지도 향상 지원	마이크로소프트, SAP, 소프벤처스, HGI 등
	LG 유플러스	5G 이노베이션 랩(19~), 상시: 보유 중인 5G 핵심기술(AR, VR, AI, 빅데이터 등) 공유,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20~): 협업 제품·서비스 출시, 우수기업 개발지원금 지원, 사업모델·제품개발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지원	-
	SKC	SKC 스타트업 플러스(18~, 매년): 신소재 분야 유무형 인프라 지원, 선정기업 대상 기술 매칭·후속 사업 제공, 사업화 지원금, 회계·법률 자문 및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사업화·R&D·경영 관련 역량개발 컨설팅 등	딜로이트인진회계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 등
석유화학	LG화학	전기차 & 배터리 챌린지(20): 전기차·배터리 기술 보유 유망 스타트업 전략 투자	현대/기아자동차
소비재	CJ 제일제당	프론티어 랩스(21~): Taste & Wellness·뉴노멀·지속가능성 분야 사업 협력, 스파크랩 초기 투자, 역량강화 멘토링	스파크랩
	BAT 코리아	BAT 오픈 이노베이션 해커톤(21): 설비 예지보전·물류 모니터링·ESG 경영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협력, 데모데이 개최, 전문가 멘토링	N15파트너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물류	롯데마트	롯데마트 리테일 테크 & 서비스 스타트업 챌린지(20): 리테일 테크·서비스 분야 사업 제휴, 롯데엑셀러레이터 연계 통한 투자 검토 및 멘토링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엑셀러레이터
	(주)한진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20): 물류분야 테스트베드 제공, 투자유치 연계 지원, 국내 진출 희망 해외기업과의 협업 지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금융	GS리테일	넥스트 푸디콘(20~, 매년): 가정간편식·스낵·의료식단·지속가능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 GS R&D 인프라 활용, 유통협업 기회 제공, 사업지원금(최대 2천만원), MD·투자자 대상 피칭, 사업계획·마케팅·브랜딩 관련 12주 멘토링	GS홈쇼핑, wecook
	신한금융그룹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20~, 년1~2회): 신한그룹 계열사와 협업, 온라인 IR데이, 협업전략 수립·사업 고도화 지원 코치 배경, 사업 강의 제공, 참여·수요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지원	-
금융	KB금융그룹	KB이노베이션허브(15 출범), KB스타터스(17~, 매년):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 추진,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 투·융자/법률/회계/특허 전문 컨설팅,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방안 모색 등	-
	DB손해보험	프리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21~, 1기): 핀테크 분야 사업 협력 및 VC 네트워크를 이용한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교보생명	이노스테이지(19~, 매년): Wealthcare·Lifecare·Future tech 분야 협업 프로젝트 추진, 사업개발비 지원(1천만원), 크립톤 직접 투자, 우수팀 후속 투자 검토(최대 10억원) 등	크립톤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금융	KB국민카드	퓨처나인(FUTURE9)(17~, 매년): 트렌드·휴먼테크·라이프스타일 분야 신사업·기술 개발 협력, 전용펀드 투자,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네트워크 연계	N15파트너스
	우리금융지주	디노랩(16 출범, 20~ 매년): 전자상거래·핀테크·ESG 등의 분야에서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및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세무·마케팅 역량강화	-
	NH농협은행	NH디지털Challenge+(19~, 5기 개최 중):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사업 제휴, 부트캠프·데모데이·인베스터데이 개최, 전문가 1:1 멘토링,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
	IBK기업은행	IBK 1st lab(퍼스트랩)(19 출범, 21 2기 선정): 금융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R&D, 사업 협력	-
바이오/헬스케어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핀테크센터(16 출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18 출범), 2020 Hanwha DREAMPLUS x SCCEI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20): 헬스케어·핀테크 분야 사업 협력, 직접 투자, 국내·외 VC 네트워크 연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신용보증기금 등
	보령제약	디헬스커버리(20~, 상시): Wellness·디지털 헬스케어·의료 혁신 분야의 사업 협력, 시드 투자(1억원 이상) 및 후속 투자 유치 연계, 세무·회계·법무·특허 교육, 헬스케어 분야 네트워킹	-
	LG화학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19 출범): 글로벌 신약 기술 도입 및 R&D	-
기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14~): ESG·인공지능 분야 포함 국내·외 스타트업 네트워킹,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넥스트챌린지 아시아 벤처스	넥스트챌린지 엑셀러레이터(20~, 년 2회): 넥스트챌린지 협력 파트너·이수그룹 간 사업화 연계, 투자 유치(최대 1억원), 각 분야 전문가 상시 멘토링	이수그룹(3기)
	인천테크노파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19, 20):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기업의 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한국무역협회	이노브랜치(20~ 출범): 국내·외 기업 간 양방향 협력 연계 온라인 플랫폼	-
기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이 기술 이전 받고, 기술 개선·신기술 개발 추진	-
	코트라	코트라·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20): 기술 도입 가능성 검토 후 상용화 계획 수립,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 활용 지원	-
	경기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 체결(21): 교육·생활·문화 분야에서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 협업, 사업 발굴, 전문가 멘토링	교원그룹
	한국 디자인진흥원	스타일 분야 대기업·유망기업 간 협업 연계	-
기타	시원팀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21): 인공지능 분야 사업 협력, 외부 투자 유치, 해외 네트워크 구축	KT, 한국과학기술원, 우리은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2021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20~, 매년):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 등 12개 혁신 성장 분야에서 기업 간 수요기술 협업 매칭, R&D 지원(2억원) 등	LG사이언스파크, 롯데케미칼 등
	코스닥협회	코스닥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데이(20): 신사업 창출 및 디지털 혁신 협력을 위한 코스닥기업·스타트업 간 연계	-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한국혁신의약품콘소시엄(KIMCo)(20): 감염병 치료제·백신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의약품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56개 제약사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그룹사	GS그룹	더 GS 헬린지(21~): 바이오 분야 R&D 인프라 제공, 전략적 협업 및 투자, 바이오 전문그룹 전담 멘토링, GS-블루포인트 네트워크 공유	블루포인트
	LG그룹	LG 사이언스 파크(18~): R&D 시설 제공, LG계열사 사업 연계, 5G-ESG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투자, 경영 전반 컨설팅	-
		LG 커넥트(20~, 매년): 스타트업 교류 및 공동 R&D, 개발 지원(6천만원), 클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유치 및 국제 홍보	-
	현대차그룹	제로원엑셀러레이터(00~): 모빌리티-물류-친환경기술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협업 연계, 단계별 투자 기회 제공(제로원펀드), 데모데이 개최	-
		2020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20): 차량편의성-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외부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 고객 수요 기술을 상품화하는 플랫폼	제로원(국내), 현대 크래들(해외)
	현대중공업그룹	기타, R&D를 위한 HMGIC (hyundai mobility global innovation centre) 건설(22 완공) 및 산업은행과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 체결(21)	-
		DT Square, DT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18~, 매년): 공동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현대중공업의 기술 멘토링	-
	CJ그룹	오벤처스(19~, 년 1~2회): Food Tech-물류-엔터테인먼트 분야의 R&D, 사업 연계, 사업 지원(1천만원), 데모데이 피칭, 협업과제에 대한 코칭	-
	롯데그룹	엘캠프(L-CAMP)(16~, 년 1~2회): 유통·서비스-관광-건설 등의 분야에서 R&D,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법률·회계·세무 자문, 역량강화, 해외판로 개척 지원(※스타트업 육성·투자법인, '롯데벤처스'를 설립하여 운영)	-
		미래식단: The food changers(21~): 미래식단-의료식단-대체 식자재·패키징 등 푸드-푸드테크 분야 R&D, 롯데식품계열사와 제품 출시 협력, 투자금(최대 1억원) 지원, 롯데벤처스를 통한 외부 투자 유치 지원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ecook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R&D

R&D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금융과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이 추진 중이었으나 신약 연구개발의 중요도가 높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가장 활발한 경향을 띠었다. 신약 출시 경쟁의 심화로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주요 동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R&D의 협력 범위는 현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및 미래 기회 확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기술-제품 개발까지 확대 적용되어 ESG 경영 도입의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 간 일방향 협력에서 더 나아가 기업과 업종의 벽을 허무는 기술 이전과 해외 수출 등 양방향 기술 협력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산업·기업별 R&D 추진 현황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건설/기계	호반건설	(주)씨브이티 지분 일부 인수(20)	(주)씨브이티(CVT), 플랜에이치벤처스
	LG전자	전기차 예코시스템-디지털헬스케어-데이터 분야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1천억원)	미래에셋그룹
ICT	현대오트모터	이스라엘 차량 보안 전문업체 업스트림 지분 투자(20)	업스트림
	석유 화학	GS칼텍스	원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오일엑스 투자(약 12억원)
에스티팜		항암-항바이러스 백신 분야 공모전 최우수기업 지원(1억원)	-
GC		스위스 바이오 스타트업 헤모툰 지분 투자(20)	헤모툰
바이오/헬스케어	녹십자엠에스	-	-
	광동제약	벤처 캐피탈 'KD 인베스트먼트' 설립, 유망 스타트업 지분 투자	-
	비보존	벤처 캐피탈 이후인베스트먼트 지분 100% 인수, 유망 스타트업 투자	이후인베스트먼트
	신신제약	파이코일바이오테크코리아(미세조류 고농도 배양기술 보유) 지분 투자(30억원)	파이코일 바이오테크코리아
	목암 생명과학연구소	체내 적용이 가능한 신규 지질(Novel Lipid) 디자인-합성 분야 공모전 최우수기업 연구비 지원(1년간 1~5억원)	-
그룹사	제넥신	유망 벤처기업에 혁신제품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판매로 주식 취득	-
	GS그룹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법인, 'GS퓨처스' 설립, 유망 스타트업 투자	-
	LG그룹	'LG테크놀로지벤처스' 설립,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투자	-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사업협력

사업 협력은 플랫폼의 윈스톱 협업 형태로 통합 추진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추진 중인 사례 대부분이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과 시장성이 확보된 기업 간 협력이며, 개별 핵심 기술 또는 제품·서비스,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사회 공헌 활동 차원에서 협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 협력의 형태는 원자재 공급·생산,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신규 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등으로 다양했다.

산업·기업별 사업 협력 추진 현황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 차량 호출 업체 리프트에 전기차 200대 공급, 사용된 차량에서 얻는 데이터는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에 활용	리프트(Lyft)
석유 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중합화학으로부터 원자재 공급	한화중합화학
유통/물류	(주)한진	CSV 활동 일환으로 함안군의 수박 판매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농협, 함안군
바이오/헬스케어	GC 녹십자엠에스	자성나노입자를 활용한 혈액정화기술의 아시아 지역 판매 담당, 생산 협력	-
	신신제약	원자재 생산을 위한 연간 500톤 이상 규모의 식물성 미세조류 DHA 생산 설비 구축	파이코일 바이오텍코리아
	목암 생명과학연구소	체내 적용이 가능한 신규 지질(Novel Lipid) 디자인·합성 관련 사업 협력 모델 창출	-
그룹사	현대차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임대 및 금융 지원 등 신규 사업 모델 기반 시범사업 운영 예정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와 태양광 시스템을 연계한 신사업 협력 	그랩 한화큐셀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국내 기업을 위한 제언

ESG 경영 패러다임 하에서 ESG 경영을 위한 전략 중의 하나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국내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업종 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별 기업·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도입하여 추진 중이었으며, 특히 바이오/헬스케어와 금융 산업, 협회와 그룹사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신약 개발을 위한 R&D와 자금 지원에 주력하는 반면, 금융 산업과 협회, 그룹사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하여 연관 기사 및 관련 공개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므로 분석 기간을 과거로 확장해 ESG 경영 도입 시점 전·후를 비교해 본다면 보다 명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ESG 경영이 화두로 대두된 최근 시점의 스냅샷을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고려 중인 기업에게는 충분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실제 다수

의 분석 대상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 동기와 목적으로 ESG를 언급하고, 활동 영역에서도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ESG 경영 확산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도입과 활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리는 없기 때문이다. 산업군별 모수의 차이로 인한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어느 산업에서 어떠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지만 참고하여도 관련 전략 설계에 작게나마 유용한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의 핵심이 곧 긍정적 외연 확대이고, 따라서 기업이 속한 생태계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기와 속도의 문제일 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앞서 나간 기업들의 해답지를 참고하여 기업 각자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성공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 무기 하나를 마련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양자 또는 다자의 참여자 간 밀접하고 복잡하게 연계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표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 과정에 있어 분명 매력적인 경영 전략이 될 것이다.



Contact

백인규 파트너
Deloitte Korea
ESG 센터장
inbaek@deloitte.com